

# 濟州大學의 施設·設備에 대한 學生의 要求 調査 研究

李淳珩\* · 姜東植\*\* · 朴泰秀\*\*\* · 金斗和\*\*\*\*

## I. 研究의 必要 및 目的

오늘날 대학은 학습을 위한 장소이면서 아울러 생활을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시설·설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의를 받는 것만으로서 대학에서의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독서, 자료의 준비, 대화, 사교, 식사, 휴식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활동들은 이른 아침부터 심야시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학교에서 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시간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 제공되는 것이 대학환경에서의 시설·설비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시설·설비의 특성은 그 규모 등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 시설들은 학생생활에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서 신체적 발달은 물론, 지력의 증진, 사회성의 함양, 정신적 안정의 도모와 같은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발달의 측면에서 그 교육적 의미는 더욱 큰 것이라(黃應淵, 1974 : 208~216)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시설·설비는 풍요하면 할수록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필요에 비추어 보아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편리하고 평소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시설·설비 등의 물리적 환경의 문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의 측면에서 늘상 점검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朴容憲, 1968 : 105~110).

\* 教育大學院 教授, 前學生生活研究所長

\*\* 學生生活研究所 助教授

\*\*\* 學生生活研究所 助教授

\*\*\*\* 學生生活研究所 助教授

대학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 몇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그 하나는 대학에서 전개되는 교육과정운영의 다양성이나 질, 그리고 학생활동이나 취미활동들과 같은 각종 정과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쳐 학구적인 성취의 정도는 물론 그들의 태도와 규범, 의식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그 특성이 이들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물리적 시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어서, 예컨대 학교특성과 교육격차와의 관계를 다룬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양자간에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하위 변인 28개 가운데서 다섯째로 그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金炳聲외, 1982). 이러한 연구에서 이들 물리적 시설을 포함한 학교의 사회적 체제는 학생의 학습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습풍토는 다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쳐 다시 상승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 시설·설비는 그것이 아무리 물리적 정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 구조, 봉사형태 등의 면에서 얼마나 학생의 필요에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느냐에 따라 학생생활의 편의 및 복지감과 중요한 관련을 가지며 나아가 그것은 그 대학 학생들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 유형을 결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공중전화나 도서관(장서)이 얼마나 있느냐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학교의 풍토적 특성, 예컨대 학구 지향적 문화(academic culture), 흥취 지향적 문화(fun culture), 또는 비행지향적 문화(delinquent culture) 풍토를 형성하는데 관련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학문적, 교양적, 심미적인 풍토 등을 달리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학생이 그 대학을 만든다는 말은 조금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학교의 특성은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느냐 하는 투입적 특성 만이 아니라 학교의 생활과정에서 이들의 특성이 시설·설비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그 행동특징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학 환경은 정태적인 구조특성적 환경(structure variable)과 동태적으로 상호작용되는 과정 환경(process variable)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과정적 환경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학생들의 요구나 그 상호작용의 특징 또한 중요한 연구의 관심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그 행동에 어떤 특징들을 지닐 수 있는 바, 그것은 구성원으로서 외적 환경에 대해 어떤 행동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환경은 그들의 대학생활을 조건 지우는 사회적 압력으로 행사된다고 보며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또한 어떤 유형의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제기하게 되느냐의 문제와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 대학의 물리적 환경가운데서 일상적인 대학생활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설비 가운데서 그들의 학구적 성취나 그에 따른 생활의 편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몇가지 중요한 것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 이를 시설·설비들의 적합성 및 과정 환경의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필요나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혀 우리 대학의 시설행정 및 학생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研究問題 및 方法

대학의 물리적 환경에는 크게 교지, 교사, 공작물외에 설비 등이 포함되며 학교시설의 주체로서 일반시설인 교사외에 행재정적 지원체제에서 필요한 총학장실, 교수연구실, 사무실, 관리실들 들 수 있고 그외 특별 시설로서 도서관, 서점, 강당, 체육관, 학생회관, 시청각실, 실험실, 음악·미술실, 식당, 매점, 기숙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이들 각종 시설 내에 장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설비, 예컨대 교단, 칠판 등은 물론이고 조명, 난방, 음료수, 시청각기기, 동식물사육장, 온실, 각종 위생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각기 어느 정도 설치·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복지감을 달리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대학설치기준령에서 이들 시설·설비에 대한 것을 대학시설의 중요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시설·설비는 평소 잘 설치·관리되고 자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합해야 하며(타당성), 법령상 설치 기준에 정확해야 한다(합법성).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가(안전성) 교육목적상 상호간에 기능적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연계성),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다목적성), 관리·유지에 경제적인가(경제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金鍾喆, 1985: 248). 따라서 그것을 시설계획의 첫단계에서부터 이들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학생의 편리에 적극 봉사되고 있어야 함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대학은 1991년 말 기준, 재적학생 9,788명(남 6,185, 여 3,603)으로 1980년부터 이설, 통합된 후 약 10년 여간에 학생수는 약 1.6배 이상으로 팽창되었다. 그럼에도 교사 순면적은 83.7%를 확보한 데 불과하고 학생회관, 강당, 실험실, 연구시설 등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자체평가 보고서, 1990 : 192).

이들 시설·설비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① 도서관, 독서실, 복사실, 서점 등 학문연구를 위한 것, ② 운동장, 체육관, 놀이터 등의 체육활동을 위한 것, ③ 동아리방등 취미와 오락을 위한 것, ④ 학생회관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것, ⑤ 양호실, 변소, 쓰레기통, 미용원 등 보건위생에 관계된 것, ⑥ 기숙사등 주거시설, ⑦ 식당, 식수대, 자판기 등 급식시설, ⑧ 휴게실, 과방, 파고라, 벤취등 휴식시설, ⑨ 버스정류장, 보행도로등 교통·통행과 관련된 것, ⑩ 기타 농협, 우체국등의 금융 체신시설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시설·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이 각기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 모두가 학생 생활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로서 그 유무, 규모, 활용도 등의 면에서 그동안 우리 대학의 발전에 수반되어 확충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필요의 증대, 이용의 면에서 부적절하거나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아, 그동안 학생자치기구등(예컨대 인권복지위원회), 또는 학내 언론에서도 단편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 대학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학생복지의 문제는 한국대학의 주요 현안인 시점에 이르러 있다(李敦熙외, 1989 : 169).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동안 양적 성장의 지표를 중시하는 인식에서부터 벗어나 질적 정체감을 확보해나가는 의식(李星鎭, 1987 : 11~16), 예컨대, 교사면적, 학생수, 교수수, 실험실 등을 늘리는 외에 위에서 제시한 여러 유형의 시설·설비의 면에서도 내적 충실을 기해 나가는 고등교육에서의 투자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학생부담의 억제 등으로 비롯되는 대학재정의 위기의 가속화는 주요시설 뿐만 아니라 이들 각종 시설·설비에 대한 한계를 들어내어 따라서 교육, 연구의 부실, 학생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는 학생불만으로 연결되어 생태적 면에서의 대학환경의 부실화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개혁에 있어 시설면에서의 그 여건의 개선은 특히 긴급한 것으로서(金蘭洙, 1989 : 14~18)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다루어지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의 시설·설비에 대한 문제는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그 관심이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연구문제보다 이들 측면과 관련된 몇가지 점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점진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들 시설은 그 활용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실용성)

둘째, 학생 모두에게 두루 사용되고 있는가?(공동성)

셋째, 공용물로서 얼마나 분별있게 사용되고 있는가?(사려성)

넷째, 이들 시설·설비는 학구적인 면에서 얼마나 중요시되어 활용되고 있는가?(학구성)

다섯째, 또한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위생성) 하는 문제들이다.

이들 가운데 학구성, 공동성, 실용성 등은 대학환경의 적합성을 변별해주는 대학환경척도 (College and University Environment Scales : CUES) 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Pace, 196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이를 몇가지 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우리 대학의 시설·설비 중 학생생활의 편리 및 복지의 면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한 것을 들면 도서관, 학생식당, 학생회관, 운동장 및 체육관, 기숙사, 등하교의 교통, 학내소음 등의 문제를 다루었고, 대학단위로도 각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여기에서는 매점, 과제도서실, 복사실, 식수대, 자판기, 놀이터, 벤치, 쓰레기통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질문지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크게 10개 영역에서 다시 40여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다시 각기 하위영역에서 세부적인 문제들이 질문되었다. 결과는 전산처리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백분율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되었다. 동간 척도로 제시된 문항들은 그 의견에서 대부분 유의한 차이로 검증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론정립을 위한 연구가 아니므로 이를 별도의 표로 작성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반응결과나 의견의 차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결과 및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필요 및 요구의 경향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Ⅲ. 調查結果 및 解釋

#### 1. 圖書館

도서관은 학생들이 학교활동에서 강의시간 이외에 중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구시설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도서와 자료를 구비하여 밤 늦게까지 개방,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대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의 도서관은 오전 9시에 개관된다. 도서나 자료의 제공을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열람실은 오후 10시까지 개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53.2%가 적절치 못하다고 반응하였으며 82.7%의 학생들은 현재보다 개방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표 1〉 도서관의 개관시간

					(%)
성별	의견	적절하다	일찍 끝난다	더 늘려야	계
	남		29 (21.97)	35 (26.52)	68 (51.52)
여		22 (13.50)	52 (31.90)	89 (54.60)	163 (100.00)
계		51 (17.29)	87 (29.49)	157 (53.22)	295 (100.00)

필요한 도서자료는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62.3%)는 의견이 많았으며(보통이다 35.4%) 더욱이 전문서적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60.5%) (보통이다 38.1%)고 반응하였고 남학생(57.3%)에 비해 여학생(63.2%)이 더 전문서적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전문학술지(저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46.9%)는 의견과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47.4%)는 의견이 서로 비슷하였다.

〈표 2〉 전문서적의 구비 정도

					(%)
성별	의견	적절하다	아니다	모르겠다	계
	남		1 (0.76)	55 (41.98)	75 (57.25)
여		3 (1.84)	57 (34.97)	103 (63.19)	163 (100.00)
계		4 (1.36)	112 (38.10)	178 (60.54)	294 (100.00)

신간도서 입하에 있어서도 제때에 구입되지 못하고 있다거나(67.0%) (보통 3.24) 입하도서의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68.5%).

위 각 문항의 의견에 대해 여학생들의 불만이 다소 높은 것이 주목된다.

열람좌석수는 절대 부족하다(64.7%) 대다수(91.1%) 학생들이 좌석이 독점되어 있고 열람실은 소란스러운 편(61.0%)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임을 바라고 있다.

시설의 문제를 보면, 냉난방이 미흡하고(37.7%), 조명시설의 어두운 면이 없지 않다(보통 60.5%에 비해 22.7%). 복사기는 다수의 학생(68.4%)이 이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도서관의 휴게실이 비좁고(49.3%) 그 주변의 휴식공간도 미비하다는데 높은 반응(71.2%)을 보였다.

〈표 3〉 도서관 설비의 문제

문항		의견			계
		미흡하다	아니다	모르겠다	
냉 난 방	미 흡	37.46	49.83	12.71	100
조 명 시 설	미 흡	22.68	60.48	16.84	100
복 사 기	미 흡	68.37	24.15	7.48	100
휴 게 실	부 족	49.32	37.41	13.27	100
주변휴식공간	부 족	71.19	18.98	9.38	100

기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

○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대폭 확대하든가 또는 24시간 개방하여 아르바이트 학생의 인력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자료실, 청각실, 과제도서실 등의 열람시간을 오후 6시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

○ 식수대 설치 및 자판기는 휴게실 내가 아닌 도서관 밖에 이동 설치해야 한다.

○ 2, 3열람실에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 좌석을 선정하기 위해 밤에 미리 갔다든 책가방을 뒷날 아침 모두 수거하여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공중전화기 앞에 형광등이 없어 불편하며 열람실 구석 부분의 조명이 어둡다.

○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에 대한 홍보가 제 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등이 많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 2. 學生 食堂

식당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외에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며 우정을 나누고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생활은 즐거운 시간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석이나 공간이 적합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심미적이고 안정된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식사 메뉴가 적절한지를 물어보았더니 4.7%의 학생들만이 괜찮다고 응답했을 뿐, 대부분

의 학생(남 75.2%, 여 78.8%)들이 메뉴가 단조롭다고 지적하여 메뉴에 대한 개선이 식당운영의 우선적인 과제과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메뉴의 적절성

성별	의견	메뉴의 적절성 (%)			계
		그렇다	보통	부적절	
남		100 (75.19)	27 (20.30)	6 (4.51)	133 (100.00)
여		130 (78.79)	27 (16.36)	8 (4.85)	165 (100.00)
계		230 (77.18)	54 (18.12)	14 (4.70)	298 (100.00)

과거 단국대학교 학생 60여명이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나 성균관대, 명지대, 경남대에서도 음식물에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전교학신문, 97호) 학생식당의 위생상태는 최근 그 문제가 표면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끔 이물질이 섞이는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적지 않은 학생(남 69.2%, 여 72.2%)들이 이를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리 상태가 성의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55%나 되어 조리과정에 보다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의 양이나 질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2.7%에 불과하고 23.1%가 '보통', '좋지 않다'가 74.3%로 응답하였고 반찬에 대해서도 양이나 질이 '좋다'가 2.7%, '보통' 23.1%, '좋지 않다'가 74.3%로 나타났다. 식단의 영양가에 대해서는 '보통'이 45.2%, '부족하다'가 47.8%로 지적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식단의 개선이 크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학생이 거리관계 등으로 제 1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학생식당의 좌석이나 공간이 부족하여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거나 밖에나가 식사한 적이 있다'는 학생도 66.2%나 되었다. 식당이 통로가 좁아 식판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다(61.8%)는 지적도 이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으로 식당의 증축내지 적절한 식당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식당운영시간에 대해 적절한지를 알아보았더니, 아침에 식당 개시 시간이 '보다 빨랐으면' 하고 바라는 학생이 38.5%, 저녁에 보다 늦게 끝났으면 하는 학생은 69.7%로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나 늦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식당운영 시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타대학에 비해 식대는 '적절하다' 26.1%, '보통이다' 49.8%, '비싸다'고 응답한 학생이 24.1%



로 나타났다. 식대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내용물이 '빈약하다' 56.8%, '보통이다' 38.8%, '만족하다'는 의견은 4.4%로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식대에 따른 내용물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번의 한 조사에서도 식단의 질은 '반드시 향상되어야 한다'(63.3%)는 지적이 있었는데(제대신문, 92.3.3), 이상의 반응들은 식단의 개선이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단의 개선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제시하고 있는 그밖의 개선방안을 보면,

- 식대를 높여(1,000원 정도로) 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해도 전과 차이가 없다. 질이 더 나빠졌다. 식대를 올리더라도 식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 적어도 기숙사 식당 정도의 식단은 되어야 한다.
- 그 다음 이물질이 많다(머리카락, 벌레, 쥐똥등) 든가, 식판의 설겅이가 잘 안되어 있다든가, 식사중에 빗질을 한다든가 등 청결과 위생문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다. 기숙사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제대신문)에서 이미 그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3. 學生會館

학생복지시설 가운데 학생회관은 대학설치령에 명시된 필수 시설로서 현재 우리대학의 학생회관은 총학을 비롯한 학생단체 및 각종 씨클, 학생식당, 문방구점, 서점, 매점, 휴게실, 우체국 등의 각종 시설외에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관련부서가 함께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1983년 현재 전국 국립대학교의 학생회관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대학은 그 확보율이 100%에 달해(金滢玉, 1984. 31~34) 있었으나 그동안 학생수의 증가 등으로 보다 효과적인 봉사시설로서 그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재 제 2 회관이 완성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학생회관은 특히 동아리방 등 그 수요의 폭주로 시설이 협소한 데 따르는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에서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고 또 사용에 따른 청결·위생상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 1) 동아리방

우선 동아리방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보면, 70% 이상의 학생들이 동아리방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청소면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8% 정도에 불과하고 '잘 되어 있지 않다' 50.5%, '보통이다'가 40.7%로 학생들 자신의 이에 대한 반응이 지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너무 늦게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9%, '그렇지 않다'가 30.8%, '보통이다'는 35.3%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적어도 1/3이상의 학생이 동아리방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적인 필요(숙식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반응도 51.6%나 되어 아울러 동아리방의 운영에 적절한 관리가 시급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 2) 학생회관의 휴게실

이에 대한 문제에서는 다섯가지를 제시하여 그 반응을 알아보았다. <표 5>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규모, 위생상태, 시설, 소파의 안락도, 좌석수 등 어느 면에 있어서도 70~80% 이상의 학생들이 상당한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표 5>

휴게실의 적합성

(%)

문항 \ 의견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규모가 모자라다	243 (82.37)	40 (13.56)	12 (4.07)	295 (100.00)
위생상태가 불결하다	233 (78.98)	55 (18.64)	7 (2.37)	295 (100.00)
시설이 낡아있다	265 (89.23)	25 (8.42)	7 (2.36)	297 (100.00)
소파가 편안하지 않다	200 (68.03)	81 (27.55)	13 (4.42)	294 (100.00)
좌석의 수가 모자라다	253 (85.76)	32 (10.85)	10 (3.39)	295 (100.00)

## 3) 매점회관의 휴게실

현재 매점에서는 문구류, 음료수, 담배 등의 기호품, 기타 필요한 약간의 일용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준비된 문구류는 '다양하지 못하며'(46.9%), 판매하는 일용품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고(50.0%), 그 이용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많다'는 응답도 58.6%나 되어 판매용품의 다양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 4) 구내서점

대학에서의 구내서점은 학생들이 직접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관련정보를 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아라캠퍼스로 통합이전 후 서점은 2층에 큰 공간을 확보하여 비교적 그 이용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공간재배치시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몇 사람이 출입하기에도 용색한 공간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6>은 이에 따른 몇가지 문제를 제시하여 반응한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그 용구의 충족도에서 불만이 크다. 교양, 전공, 일반서적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학생이 필요한 서적을 제대로 구비하여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외에도, 있는 서적도 학생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책의 비치나 활용의 면에서 크게 불편한 형편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구내 면적의 협소가 경영규모를 빈약하게 만든 큰 잠재 요인으로 생각된다.

<표 6> 구내서점의 적합성 (%)

문항 \ 의견	그 령 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구내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279 (93.31)	15 ( 5.02)	5 (1.67)	299 (100.00)
전공서적이 모자라다	170 (58.02)	112 (38.23)	11 (3.75)	293 (100.00)
교양·일반 서적이 모자라다	214 (72.19)	73 (24.83)	7 (2.38)	294 (100.00)
무슨책이 있는지 잘 알아 볼 수 없다	267 (90.51)	20 ( 6.78)	8 (2.71)	295 (100.00)

#### 5) 학생회관의 로비

많은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학생회관은 그 통로가 '복잡하고 불결하다'는 점이(66.8%) 지적되고 있다. 2, 3층 로비에 간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든지(73%), 층별로 식수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80%), 공중전화 이용시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 68%로 학생회관의 로비와 통로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간의 의자, 식수대, 공중전화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학생회관 화장실

학생회관의 화장실은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특히 그 빈도가 더욱 높다는 점에서 그 관리에 있어 세심한 청결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학생회관의 화장실은 그 활용의 면에서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에 처해 있음을 들어 내고 있다. 청소불량(74.5%), 환기불량(83.9%), 휴지의 불비(92.3%) 등 여러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고 있으며 정화수도 제때에 그 기능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7〉 학생회관의 화장실의 위생도

문항	의견				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	
청소가 잘 안되어 불결하다	222 (74.50)	62 (20.81)	14 (4.70)	298 (100.00)	
환기가 잘 안되어서 악취가 날 때가 있다	250 (83.89)	45 (15.10)	3 (1.01)	298 (100.00)	
휴지가 제때 마련 되어 있지 않다	275 (92.28)	18 (6.04)	5 (1.68)	298 (100.00)	
수도물이 때맞추어 잘 흘러 내리지 않는다	143 (48.15)	113 (38.05)	41 (13.80)	297 (100.00)	

#### 7) 학생회관의 사용상태

〈표 8〉은 학생회관의 사용 상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청결의식이 '부족하고'(77%), 곳곳에 때가 지난 부착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82.3%), 청소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75.8%)고 지적하는 외에, 동아리들의 준비활동 등으로 소음등 공해요소가 심각하다(73.2%)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 8〉 학생회관의 사용 상태

문항	의견				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	
학생들의 청결 의식의 부족하다	225 (76.79)	60 (20.48)	8 (2.73)	293 (100.00)	
곳곳에 낙서와 때 지난 부착물 게시	242 (82.31)	44 (15.97)	8 (2.72)	294 (100.00)	
청소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222 (75.77)	59 (20.14)	12 (4.10)	293 (100.00)	
소음, 준비활동 등으로 공해요소가 심각하다	213 (73.20)	55 (18.90)	23 (7.90)	291 (100.00)	

전반적으로 볼 때, 청결, 위생, 소음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한 것으로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용에 있어 주인 의식이 크게 요청되는 등 학생 자치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학생회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개선해야할 점을 제안하도록 한 결과,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몇가지만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 화장실 조명을 보다 밝게 했으면 한다.
- 매점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하다.
- 동아리방은 그 인원수와 특성에 따라 재배치가 요구된다.
- 퇴근후의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여 야간매점 또는 국산담배에 대한 자판기 설치가 요구된다.
- 공중전화에 박스가 설치 되었으면 한다.
- 공중전화가 자주 고장난다.
- 학생회와 협의, 학생 자발적으로 청결을 유도하고 2,3층의 로비에 실외 재털이, 공중전화 등의 증설이 요구된다.

이상의 지적들을 간추려 볼 때, 현재의 학생회관은 협소, 복잡, 소음, 불결하다는 것이 그 전부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문제를 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복지시설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 기능에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 8) 농 협

농협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자유 반응식으로 질문한 결과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첫째, 공간이 너무 비좁아 복잡하다.
- 둘째, 직원이 부족하여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셋째,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넷째, 기다리는 시간에 읽을 거리가 없다.
- 다섯째, 너무 일찍 업무를 끝내 마감시간이 연장되었으면 한다.
- 여섯째, 예금자동인출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것 등 전반적으로 장소가 협소하다는 점과 직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더 넓은 공간 내지는 독립된 점포를 신설,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 9) 우체국

우체국에 대해서도 그 이용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도록 한 결과, 우편번호부가 너무

납아 이용에 불편하다든가, 특급우편도 취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좀더 친절히 대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 10) 이용원

이용원의 이용에 대해서도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때때로 문이 닫혀 있어 돌아온 적이 많다든가, 성의가 없다(머리를 잘 감겨주지 않고 뒤통리도 세밀히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다.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명확치 않으며 휴일에 대한 안내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업시간을 분명히 하여 이를 준수하고 학생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여학생용 미용실은 왜 개설되지 않는가라는 반문성 제안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학생수가 전체 학생수의 과반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천여 여학생을 위해, 더구나 요즘에는 남학생들도 미용실을 적지않게 이용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미용실 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4. 運 動 場

운동장에 대해서는 부설 설비와 정리상태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는데, <표 9>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9> 운동장의 시설 및 관리상태

문항	의견			계
	그 령 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화장실의 관리가 잘 됨	41 (14.49)	95 (33.57)	147 (51.94)	283 (100.00)
샤워시설이 잘 됨	30 (10.68)	86 (30.60)	165 (58.72)	281 (100.00)
소운동장의 정리가 시급	237 (83.45)	34 (11.97)	13 (4.58)	284 (100.00)
운동기구 시설이 증설 필요	245 (85.96)	30 (10.53)	10 (3.51)	285 (100.00)

우선 화장실을 보면,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 절반(51.9%) 이상이며 샤워시설도 이점에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운동기구는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시설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구가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 소운동장은 보조적인 일시적 시설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주운동장보다 그 활용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80% 이상의 학생들이 소운동장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그린벨트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잡초 등의 제거, 우천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다든지 하여, 주로 노면(바닥)을 보다 평평하게, 그리고 잔디 등과 모래 등을 깔아 부드럽게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철봉, 농구대 등이 보수 및 간이운동기구(볼 등)코너 등을 마련하여 손쉽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5. 體 育 館

특기의 연마가 아닌 정상적인 체육은 체력의 단련과 더불어 생활에 활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일상 생활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생들이 레크리에이션으로서, 그리고 학구생활 틈틈히 주어지는 휴식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수단으로서 손쉽게 이에 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체육관이다. 대학의 체육관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따라서 그것은 항상 개방되어 모든 학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관의 개방 여부, 놀이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탁구대 설치, 그외 놀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러면에서 학생들의 필요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을 보면,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항시 '개방되어야 한다'가 87.3%, 놀이프로그램이 '늘 제공되고 있어야 한다'가 52.8%, 평소 탁구대가 체육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가 89.4%로 나타나 체육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을 요청하고 있다.

<표 10> 체육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항	의견	필요하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실내 체육관 개방되어야		254 (87.29)	25 ( 8.59)	12 ( 4.12)	291 (100.00)
놀이프로그램의 제공되어야		149 (52.84)	76 (26.95)	57 (20.21)	282 (100.00)
탁구대 설치 되어야		252 (89.36)	19 ( 6.74)	11 ( 3.90)	282 (100.00)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토록 자유로 기술하게 해본 결과, 다음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간추릴 수 있다.

○ 체육학과의 독점 사용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각과 행사시간이라도 손쉽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 건강, 헬스기구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탈의실, 샤워실 등이 보다 정비되어야 한다.

○ 체육과 학생들의 사용시간을 제외하고 개방시간을 정해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체육관은 제대인의 전체의 것이지 특정학과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력히 지적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정해 에어로빅, 디스코텍, 기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 6. 寮 宿 舍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입사기회, 식당의 메뉴, 실내 학구적인 분위기, 냉난방의 적합성등을 질문하여 조사하고 기타 개선의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표 11>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기숙사 시설

문항	의견 (%)			
	그 령 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수혜를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107 (55.15)	59 (30.41)	28 (14.43)	194 (100.00)
식당의 메뉴가 적합하지 않다	39 (19.12)	99 (48.53)	66 (32.35)	204 (100.00)
분위기가 정숙하지 않아 학구에 불편하다	31 (20.67)	81 (54.00)	38 (25.33)	150 (100.00)
냉·난방이 미흡하여 지내기에 불편하다	46 (33.33)	73 (52.90)	19 (13.77)	138 (100.00)

이를 보면, 약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입사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기타의 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기타 개선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학생 기숙사 시설을 원하는 학생이 지배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조교들의 보다 친절한 지도를 바라고 있는 점도 여러 면에서 제기되었다.



## 7. 登下校의 交通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를 하면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우리 대학은 도심에서 제일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한 통학 가능한 전도 일원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는 것 같다.

### 1) 주차장

우선 정문앞 주차장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차광시설, 우천시 대피시설등이 미흡하다는 학생이 91.5%, 보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학생이 67.9%, 가로수 식재 등 주변미화가 '더 필요하다'는 학생이 69.2%, 쓰레기통이 '더 설치되었으면 한다'가 76.1%, 자판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7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차장주변의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반응하였다.

### 2) 시내버스 운행

도서관 마감 시간이 12시인 관계로 학생들은 막차 출발시간이 보다 늦게 조정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표 12>를 보면 93%나 학생들이 막차 출발시간이 11시까지 연장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캠퍼스 구내가 너무 넓어 특히 우천시에는 학생들이 통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천시에 버스가 교내까지 연장 운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비율은 88%에 이르고 있다.

<표 12>

시내버스 운행 문제

문항	의견				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	
막차 출발시간 11시까지 연장	271 (93.45)	15 (5.17)	4 (1.38)	290 (100.00)	
우천시 버스가 교내까지 연장통행	252 (88.11)	13 (4.55)	21 (7.34)	280 (100.00)	
노선별 운행시간표 게시	264 (94.29)	12 (4.29)	4 (1.43)	280 (100.00)	

한편, 행선지별로 일정 시간대의 버스를 놓치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기사들이 출발시간을 임의로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학생들은 정확한 버스운행시간표를 알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노선별 운행시간표를 정확히 게시해 주기를 바라는 학생이 94.3%나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구내 통행

캠퍼스가 넓은 관계로 학생들은 구내 통행에도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표 13>은 이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 13> 통행상의 제문제

문항	의견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야간보행의 불안	187 (65.61)	70 (24.56)	28 (9.82)	285 (100.00)
차량의 서행 통제	258 (89.90)	21 (7.32)	8 (2.79)	287 (100.00)
인도 통행 준수	155 (54.77)	67 (23.67)	61 (21.55)	283 (100.00)
도서관 열람 끝난후 스쿨버스 운행	237 (83.16)	29 (10.18)	19 (6.67)	285 (100.00)

우선, 야간 통행이 불안하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65.6%)이나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빈번한 차량통행에도 학생들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행통제를 요구하는 학생이 89.9%나 되며 학생들 스스로가 인도 통행을 준수해야 한다는 필요도 과반수 이상의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도서관 열람시간이 끝난후 시내버스가 두절되어 이에 대한 불편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 83.2%의 학생들이 시내까지 스쿨버스가 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밖에 등하교시 불편한 사항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한 결과, 다음 몇가지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11시 30분경에 스쿨버스를 운행했으면 한다.
- 지정 주차장의 버스 주차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차장에 조명시설을 늘려주고 쓰레기통을 시설해야 한다.
- 야간 퇴근버스에 교직원 몇분만 타고 내려가는 경우 학생들도 편승시켜 주었으면 한다.
- 버스시간 변경시 버스시간표가 게시되었으면 한다.

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어 학생들의 교통에 개선될 사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8. 學內 騒音

아라 캠퍼스로 통합이후 대학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시국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데모와 관련된 각종 주장, 이를 위한 사전 준비나 예행 활동, 급격히 증대된 각종 써클등의 행사와 발표활동, 5교시(점심)임에도 정규 수업시간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정규 교내 방송 활동, 연구실 앞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자행되는 족구등의 활발한 놀이활동 등 모든 활동은 본래 우리 대학 캠퍼스를 특징짓는 외형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매우 산만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우리 대학 환경이다. 따라서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강의시간에 강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국면에 처하게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교수와 일부 지각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가지로 문제를 제기해 왔음은 그 심각성의 일면을 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4〉는 이와 관련된 학내소음과 정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 14〉 학내 소음의 정도 (%)

문항 \ 의견	너무 시끄럽다	시끄럽다	별로 시끄럽지 않다	무반응	계
남	42 (32.81)	58 (45.31)	27 (21.09)	1 (0.78)	128 (100.00)
여	41 (25.79)	68 (42.77)	50 (31.45)	0 —	159 (100.00)
계	83 (28.92)	126 (43.90)	77 (26.83)	1 (0.35)	287 (100.00)

‘너무 시끄럽다’가 28.95, ‘시끄럽다’가 43.9%로 이 비율을 합하면 70%이상의 학생들이 학내가 소란스럽다고 지각하고 있다.

소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① 각종 데모 ② 학생회 각종 행사안내, ③ 도로, 교사주변에서의 공놀이, ④ 풍물소리, ⑤ 교내 방송소리, ⑥ 자동차 소음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밖의 문제 및 이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 결과, 풍물연습이 지배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들의 놀이(활동할 수 있는)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어 학생들은 자치회 또는 학교 당국에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이 제안하였으며, 또한 학생회 등에서는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확성기 사용을 억제하고 방속국도 소리의 정도(볼륨)을 낮추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학생들의 지각있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9. 大學單位的 施設 · 設備의 問題

대학 단위에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늘상 접하게 되는 주요시설이나 설비에는 과제도서실, 휴게실, 매점, 식수대, 자판기, 복사실, 야외 벤취, 간이놀이터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시설들은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또는 학과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예컨대 사범대학에는 휴게실이나 매점, 복사실 등이 전혀 없어 이들 설비 시설들에 대해 공동적으로 그 반응을 얻는 것이 무리였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지점에서 각기 이들 시설·설비들은 사용하는 선에서 이에 따르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점 - 전반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62.9%이고 판매원이 '부재' 또는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67.2%로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외 구매가격이 좀더 싸야 한다든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문제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보다 그 운영에 합리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제 도서실 - 학과 단위로 과제실이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 69.1%로 제일 지배적인 요구였다. '전공도서가 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가 41.2%로 아직도 과제도서실의 수요와 그 운영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3) 복사실 - 복사실의 가장 주된 문제는 오래 기다린 적이 많다(84.4%)는 점이다. 협소하다(81.1%)든가 자주 고장이 난다(67.9%)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학생들의 일상 복사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4) 식수대 - 식수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식수대의 문제

문항	의견				계
	그 령 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	
대수가 충분하다	33 (12.04)	41 (14.96)	200 (72.99)	274 (100.00)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35 (12.77)	39 (14.23)	200 (72.99)	274 (100.00)	
비위생적이다	202 (72.66)	36 (12.95)	40 (14.39)	278 (100.00)	
물이 잘 안 나온다	120 (44.61)	93 (34.57)	56 (20.82)	269 (100.00)	

우선 식수대의 수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72.9%,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반응이 72.9%, 그리고 화장실과 분리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72.7%로 물이 잘 안나온다는 반응도 44.6%나 된다. 대수, 위치, 통수 등의 면에서 가능한 한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 깨끗하고 편의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5) 자판기 - 대학동별로 모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다 더욱이 자판기의 서비스 기능에 적지 않는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표 16>을 보면 자판기의 대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64.3%이며, 게다가 잦은 고장(81.2%)도 흔히 겪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표 16>

자판기의 문제

(%)

문항	의견	그 령 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대수 증치		180 (64.29)	64 (22.86)	36 (12.86)	280 (100.00)
담배 자판기 설치		92 (33.58)	36 (13.14)	146 (53.28)	274 (100.00)
위생대 판매		226 (81.88)	37 (13.41)	13 (4.71)	276 (100.00)
컵라면 판매		233 (84.12)	27 (9.75)	17 (6.14)	277 (100.00)
잦은 고장		225 (81.23)	39 (14.08)	13 (4.69)	277 (100.00)
과소비 장치		46 (17.69)	44 (16.92)	170 (65.38)	260 (100.00)

판매물품의 면에서도 컵라면, 담배, 위생대 등 긴급한 일용품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그 효율에서 적절치 못한 점이 크다.

그밖에 대학주변에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70.1%인데 비해 이러한 시설은 강의에 지장을 주므로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반응이 47.5%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기 이에 대한 반응의 비율은 어느 쪽이 지배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과대학별로 긴급한 설비가 무엇인지 그 종류 및 우선순위를 제기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인문대 - ① 식수대, ② 라면자판기, ③ 과제도서실

- 3) 사범대 - ① 복사실, ② 매점, ③ 과제도서실, ④ 학과방, ⑤ 간이휴게실, ⑥ 식수대  
 4) 농과대 - ① 식수대, ② 과제도서실, ③ 간이휴게실, ④ 복사실  
 5) 해양대 - ① 매점, ② 간이휴게실  
 6) 공과대 - ① 과제도서실, ② 식수대, ③ 간이휴게실  
 7) 자연대 - ① 학과방, ② 식수대, ③ 간이휴게실

(법정대는 표집과정에서 회수율이 미흡하여 제외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각대학 공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식수대와 과제도서실이 5개 대학이, 동별간이 휴게실 그외 매점, 라면자판기, 학과방이 각 2개 대학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여학생 화장실마다 위생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IV. 要約 및 結論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과업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시키며, 학생들 또한 대학에서의 모든 시간, 노력을 기울여 그들의 생활은 대학을 터전삼아 확충해 나간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각종 교육시설이요 설비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보이면서도 교수, 학생수 등의 증가로 볼 때 강의, 연구를 비롯한 대학에서의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설비는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한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위기론이 제기된지는 이미 오래이나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율이 정부나 대학자체로서 한계에 달해 대학교육의 질의 저하는 물론 대학구성원간에 많은 갈등과 심지어 마찰까지 빚어 이러한 사실이 적지 아니하였다.

또한 개별 대학 실정에서 보더라도 그 시설·설비의 격차나 그 문제 또한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달라 최근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불만 내지 불편은 학내 자치운동에서의 주요한 이슈로 주장되기까지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학 당국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그 질적 정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활의 장소로서의 대학에 대해 학생들의 복지감에 다시 대학은 중요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캠퍼스 시설 통합후 그 동안 양적 발전과 시설의 확충에 집약적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대학의 발전 과정에서, 그 내부시설 및 설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과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필요들이, 특히 학생 관련 시설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중요한 요구나 그에 따른 문제등이 무엇인지 이를 조사하여 대학 행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몇가지 시설·설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대학 전체에 공통된 사항 및 대학단위별로 각기 특성에 따라 질문지를 작성 반응토록 하였고 또한 학생들이 자유반응식으로 중요한 문제 또한 그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제안토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개(폐)관 시간, 전문서적의 구비정도, 내부설비의 적합성 등의 면에서 반응에 응답한 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각기 부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그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았음을 시사하였다.

학생식당도 그 메뉴, 서비스, 위생 등의 면에서 학생들이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학생회관은 동아리방, 매점, 서점, 휴게실, 우체국 등 주요시설이나 설비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동아리방의 운영이나 청결에 대한 관리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구내서점은 협소하여 열람이나 필요한 책의 확인에 불편한 점이 대단히 크며 매점(문방구)도 취급품목이 충분치 못하고 판매자 등의 봉사자세도 친절치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생회관의 휴게실도 규모, 위생상태, 좌석수, 소파의 안락함 등 어느 면에서도 적절치 못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회관의 통로와 로비도 너무 복잡하여 불편하다든지 층별로 필요한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대해 여러가지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화장실의 경우는 정화수 유통, 청결 상태의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반응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회관의 사용상태는 학생들의 청결의식이 부족하고 곳곳에 낙서와 때지난 게시물들이 부착된 채로 지저분하게 남아 있는 곳이 많고 소음등 공해요소가 상당히 커서 전반적으로 관리와 운영의 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임을 말해 주었다.

부대시설을 보면, 우선 농협은 구내가 비좁고 직원이 모자란데 따르는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이용실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엿보이며 여학생들은 미용실을 설치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운동장은 특히 소운동장의 지반의 정비, 운동기구등의 증설, 이에 따른 봉사체제를 갖추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이 일부 학생들에 독점되어 있어 개방과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기숙사는 시설규모가 한정된 탓이긴 하지만, 절반이상의 학생들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정숙한 분위기, 냉난방의 편의 면에서 보다 나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바라고 있다. 여학생기숙사의 신설에 대한 필요도 많이 제기되었음을 새삼 지적하고 싶다.

등하교와 관련된 교통의 면에서 최초, 그리고 최종 버스운행시간이 각기 앞당겨지고 보다 늦춰져야 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우천시에 교내까지 버스연장 운행, 심야시간에 시내버스가 두절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학생들에 대한 스쿨버스의 시내까지 연장운행의 편의를 도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노선별 운행시간표에 대한 적시 안내(정보)도 평상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점이었다.

구내의 통행에는 상당수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어 교내규찰대등의 자구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제기하였으며, 교문앞 주차장 관리에도 편의설비들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대학은 캠퍼스 소음이 특히 문제가 되어 왔다. 70%이상의 학생이 시끄럽고 학습에도 방해를 받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단위별로 필요한 시설·설비에서 무엇이 시급한지를 알아보았더니 각 대학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 5개 대학이 식수대와 과제 도서실이, 그외 간이휴게실 매점, 라면 자판기, 학과방의 증설되기를, 그리고 특히 여학생은 위생대가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의 학생 시설·설비에는 그 적합성 및 활용의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학구생활및 그에 관련된 편의·설비등을 보다 시급히 개선하여 그들의 복지감을 보다 높여 즐겁고도 보람있는 대학생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또는 학생행정의 면에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金蘭洙, 大學改革論, 良書院, 1989.
- 金炳聲, 教育隔差關聯要因研究, 韓國教育關研院, 1987.
- 金玉煥, 大學論, 教育社, 19 .
- 金鍾喆, 教育行政學 特講, 1985, 世英社.
- 金澄玉, “福祉施設의 擴充과 效率的 運用”, 「大學教育」, 12호, 1984. 11, pp. 31~34.
- 朴容憲, “學校環境의 社會的 研究”, 韓國教育學會, 「教育의 動向」, 培英社, 1968.
- 李敦熙 외, 大學의 傳統과 現實,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李星鎬, 大學教育課程論 延世大出版部, 1987.
- 黃凝淵, “學校環境의 物理的 條件”, 鄭元植, 「教育環境論」, 教育拜學社, 1974.
- 濟州大學校 自體評價研究委員會, 濟州大學校 自體評價研究報告書, 1990.
- 濟州新聞, 1992. 3. 3
- Bok, Derek, *Bey and the Ivory Tower,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Moderu University*, Co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2.
- Heywood, John *Assessineit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 John nWiley & Sons. 1989.
- Pace, C.R. *CUES and Technical Manual*, N. J. : Princeton, ETS, 1909.